

# WTO 및 세계은행 농업관련 논의 동향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1. 세계무역기구(WTO)의 세계무역보고서

2013년 7월에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무역보고서(World Trade Report)”를 발간하였다(WTO 2013). 세계무역보고서는 WTO가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데, 그 중점 주제는 연도별로 다르게 결정된다. <표 1>은 2003년 이후 세계무역보고서의 중점 주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2013년의 경우 “미래 세계무역의 결정요인”이다.

이번 호에서는 2013년 보고서 중 “세계 무역의 추이(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부분을 발췌하여 요약하였다.

### 1.1. 경제사를 통해 고찰한 세계 무역의 발전

세계 무역의 미래를 형성하는 요인을 이해하려면 오늘날의 무역체제를 있게 한 역사의 배경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 무역은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수송과 통신기술의 눈부신 성장으로 재화와 자본 및 사람의 운송비가 현격히 낮아진 것이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물리적 거리의 소멸(The death of distance)”은 1800년대 초반부터 세계 무역의 발전을 형성해온 힘을 은유하는 현대용어이다.

\* (songsooo@gmail.com).

표 1 연도별 WTO 세계무역보고서의 중점 주제

연도	중점 주제
2003	무역과 개발
2004	연대
2005	무역과 표준 및 WTO
2006	보조와 무역 및 WTO
2007	60년간의 다자간 무역 공조: 무엇을 배웠는가?
2008	세계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무역
2009	무역정책 약속 이행사항과 대비
2010	천연자원의 무역
2011	WTO와 특혜무역협정: 공존부터 연대까지
2012	무역과 공공정책: 21세기 비관세 장벽을 자세히 살펴보기
2013	미래 세계무역의 결정요인

자료: WTO ([http://www.wto.org/english/res\\_e/reser\\_e/wtr\\_e.htm](http://www.wto.org/english/res_e/reser_e/wtr_e.htm)).

글로벌 경제의 등장은 지난 200년 동안의 무역 확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럽을 거쳐 북미대륙, 아시아, 아프리카로 확산되고 있는 산업화로 인해 세계 무역과 경제 통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800년대 중반 이래로 세계 인구는 약 6배, 생산량은 60배, 무역은 140배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통합의 깊이가 심화되고 성장이 확산되는 현대경제의 선순환은 “세계화(globalization)”라 불린다. 물론 기술구조 측면의 영향력이 세계화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정치적 힘 또한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지난 200년 동안 세계화의 역사 속에서 정부는 축소되기보다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 1.1.1. 세계화의 첫 번째 시대

19세기 초는 세계무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800년대 초 산업혁명과 함께 대량의 무역, 자본, 기술이 확장되었고 이주 및 통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세계화의 첫 번째 모습이다.

특히 수송기술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증기력을 이용한 증기선은 그 첫 번째 혁명적 기술이다. 이로 인해 수송비는 더욱 낮아졌고 대양을 가로지르는 증기선 무역은 사치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자를 실어 날랐다. 증기력을 이용한 수송부문에서 철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철도의 발달로 대륙 사이의 수송비가 큰 폭으로 줄었고, 특히 19세

기 후반 미국 내륙 지역이 세계 경제와 연결되고 미국 내 경제가 빠르게 진척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1840년대의 전신 전자의 발달로 통신비용이 낮아졌다.

이 결과 세계 수출은 평균 연간 3.4% 증가하였고, 세계 GDP는 2.1%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또한 세계 총 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19세기에 시작된 무역의 발달로 무역의 비율은 1870년에 4.6%에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3년에 7.9%까지 증가하였다<표 2 참조>.

표 2 세계 GDP에서 수출의 비율 추이

연도	비율(%)
1870	4.6
1913	7.9
1950	5.5
1973	10.5
1998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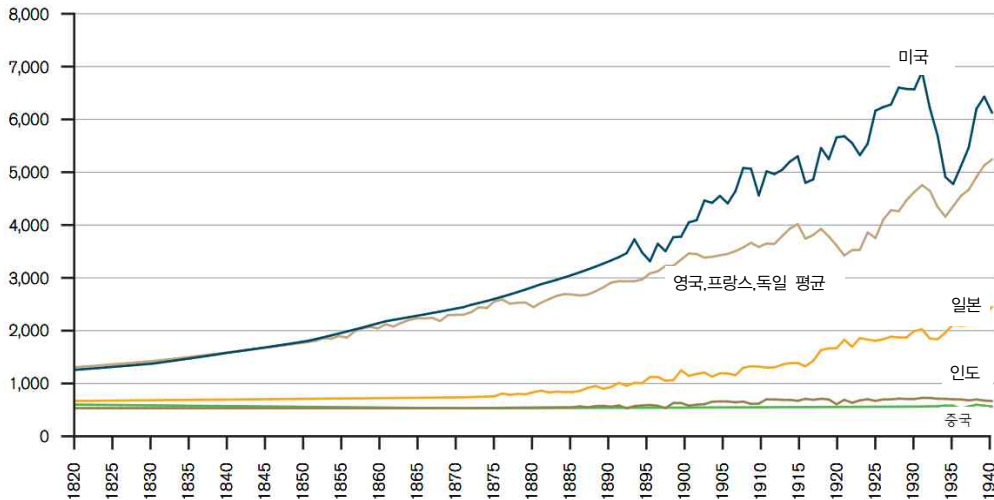
자료: OECD (<http://www.theworldeconomy.org/statistics.htm>).

### 1.1.2. 노동 분업과 빈부 격차의 확장

19세기에 나타난 국제 무역의 확대로 말미암아 세계경제의 전문화(specialization)가 촉진되었다. 국가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생산했고 이에 따른 국제 노동 분업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그에 따른 발전의 결과는 균등하지 않게 분배되었다. 초기에 영국이 주도하던 경제 우위는 이후 서유럽과 북미 및 일본으로 이어졌고, 19세기에 심화된 글로벌 경제의 통합과정을 거치며 북반구와 남반구의 소득차이는 더욱 커졌다.

큰 폭의 운송비 감소는 무역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무역의 다양화(diversification)를 이끌었다. 또한 목선 대신 증기선이, 말 대신 철도수송이 보편화되면서 대량의 상품이 세계 산업구조를 통해 문명화의 초기를 경험하던 나머지 세계로 보급됐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 산업국은 저가의 원료에 접근하고 그들의 제조상품을 팔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얻게 됐다. 이들의 경제 및 기술발전 속도가 제3세계를 빠른 속도로 앞지르게 되면서 둘 사이의 소득 차이는 계속 증가했다. 1820년에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1인당 GDP는 빈곤 국가의 3배였으며, 1910년에는 9배, 1925년에는 15배로 확대되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주요국의 1인당 GDP(1990년 국제달러)



주: 국제달러(international dollar)는 모든 나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력이 같은 가상의 화폐임. 국가의 화폐 가치를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에 따른 전환률로 나눠 계산함.

자료: World Economics <www.worldeconomics.com>

### 1.1.3. 글로벌 경제의 압력과 통합

19세기 세계 경제의 통합 과정에서 국제정치의 설립이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영국은 1881년 금본위제를 최초로 채택하였고, 1880년대 후반에는 사실상 세계가 금본위제를 채택하면서 국제 재정체제가 통일되었다. 모든 국가들이 화폐 가치를 금 단위로 고정시킨 이후, 각 화폐는 서로 고정된 환율을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환위험과 국제수지의 장벽을 없앴다. 1870~1914년은 국제 무역과 자본의 흐름에서 최고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발현된 시기였다.

### 1.1.4. 탈세계화(De-globalization)

19세기 세계화의 물결은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 속에 큰 부담에 직면하였다. 전쟁은 자유경제 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 기반의 통합과 상호연계를 통해 경제 번영을 이끌어 냈던 19세기의 믿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세계 무역은 크게 위축되었고 금본위제는 무너졌으며 경제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결국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유럽은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세계 경제의 리더십과 협력의 부재는 전쟁으로부터 회복을 어렵게 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수요의 붕괴와 금융위기 및 실업의 증가는 보호주의와 경제 국수주의에 의해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무역 전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1930년대에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25%로 정점에 도달했다. 결국 국제 무역은 붕괴했고 1929~34년에 무역 가치는 2/3가량이 감소하였다.

#### 1.1.5. 새로운 세계화(Re-globalization)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새로운 세계화를 경험하였다. 실제로 1950~73년에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성장하였고, 지형적 범주도 훨씬 넓어졌다. 1인당 세계 GDP는 해마다 3%, 세계 무역은 8%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계화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20세기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물결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가트(GATT)를 포함한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라고 하는 다국 간의 새로운 금융 체제의 설립에 기초했다. 양 전쟁의 경험으로부터 국제 사회는 국제적인 정치 협력과 지속적인 평화가 경제 협력을 토대로 형성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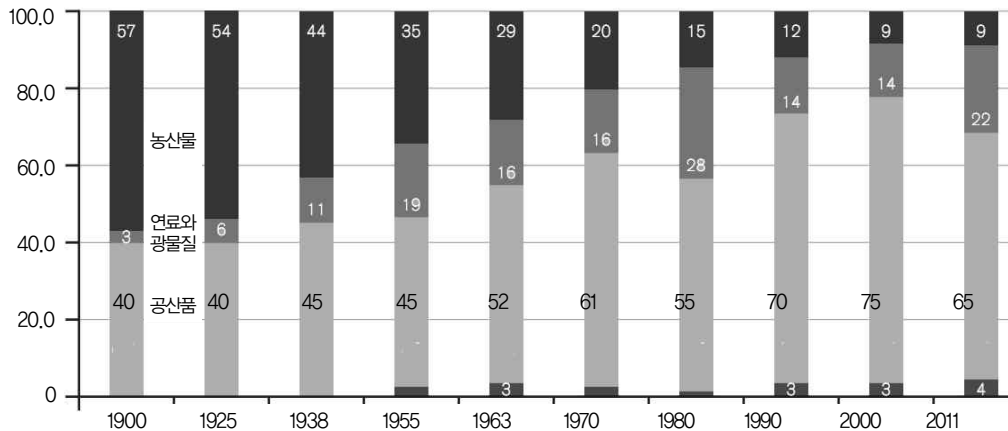
#### 1.1.6. 운송과 통신 부문의 혁신

국제사회는 양 전쟁 사이의 탈세계화 이후 1945년 이래로 새로운 세계화를 겪었다. 이는 운송과 통신 부문의 기술진보 위에 형성된 것이고, 몇몇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빠른 진보양상을 나타냈다. 전쟁은 실제로 대양을 횡단하는 선박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전쟁 기간에 무역의 구성 또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띄게 되었다. 전에는 원료와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교역했다면, 1945년 이후에는 공산품이 거래되었다. 공산품이 전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00년에 40%에서 2000년대 75%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농산물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57%에서 9%로 축소되었다<그림 2 참조>.

통신비의 급격한 감소는 서비스 무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국가 간에 교환될 수 없었던 다양한 금융상품, 소매업, 제약, 교육 등이 전자서비스의 형태로 교역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 무역의 성장률은 세계 경제를 앞지르게 되었다. 1950~1980년에 세계 무역은 해마다 7.2% 증가한 반면에 세계의 국내총생산량(GDP)은 4.7% 성장하는데 그쳤다.

그림 2 상품 수출에서 품목별 비중(%)



자료: WTO(2013).

## 1.2. 지난 30년 간 세계 무역의 변화

지난 30년 동안 세계 교역량은 빠르게 증가했다. 1980~2011년에 세계의 상품 교역 가치는 2조 달러에서 18조 달러로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서비스 교역이 같은 기간에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서비스 교역은 같은 기간에 3,670억 달러에서 4조 달러로 해마다 평균 8.2%씩 증가했다.

1980년 이후 무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역량이 생산량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많은 요인들이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 냉전의 종식으로 선진국에 지급된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이 경제발전을 도왔으며,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역시 무역을 가속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또한, 중국과 인도와 같은 거대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개혁을 단행했고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으로 선진국 경제에 대한 추격을 진행했다.

### 1.2.1. 세계 무역의 주도 세력

최근 세계 무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개도국의 교역비중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1980~2011년에 개도국의 수출과 수입의 교역비중은 각각 34%와 29%에서 47%와 4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중국의 수출비중은 1%에서 11%로 증가해 개도국 중 10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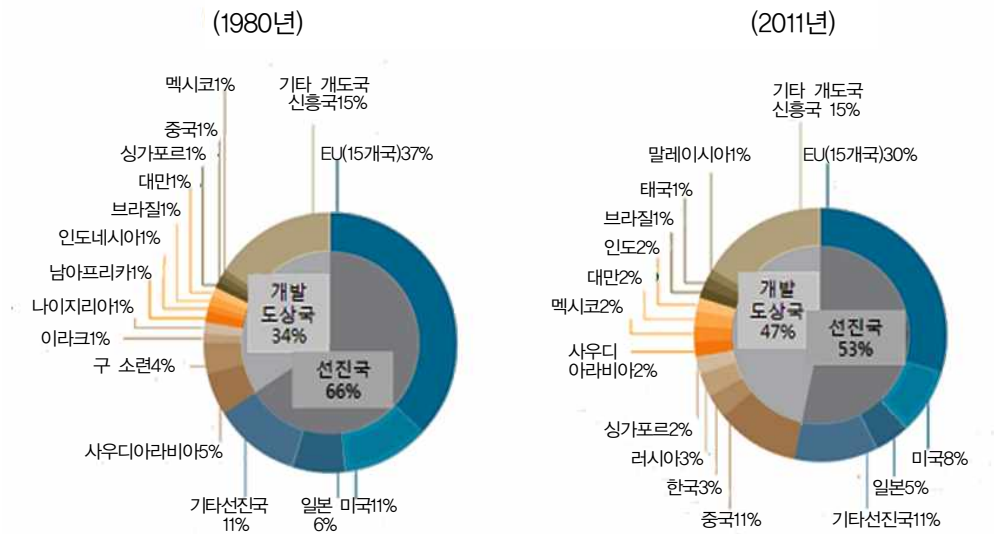
① 개발 수준에 따른 수출/수입 주도 국가

<그림 3>은 1980~2011년에 세계 상품 수출량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무역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에 개도국의 무역 비중은 높아진 반면에 선진국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 10대 수출 개도국에 속하지 않았던 한국, 인도, 태국이 2011년에 세계 상품무역 총 수출에서 각각 3%, 2%, 1%를 차지하며 부상하였다.

반면 동기간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은 총 수출량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최근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출 비중은 1990~2011년에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일차 생산물과 제조업 부문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수출과 비슷한 추세가 수입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개도국과 신흥 경제국의 수입 비중은 29%에서 42%로 늘어났다. 미국의 수입 비중은 사실상 작은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체 선진국의 비중은 71%에서 58%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 상품 수출에서 주요국의 비중(%)



자료: WTO(2013).

②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교역

또 다른 세계 무역의 특징은 국가 그룹들 간의 교역량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선진국은 북반구로 나타내고 개도국은 남반구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북-북 간의 교역량은 1990년에 56%에서 2011년에 36%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남-남 간의 교역량은 8%에서 24%로 증가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북-남) 간의 교역량은 2000년대 이후 37% 정도의 비중으로 안정되어 있다.

③ 세계 무역의 불균등

세계 무역의 불공평성을 계측하기 위해 지니 계수를 산출해 보면 1980년에 0.83이고 2011년에 0.82이다(계수의 값이 0이면 모든 국가가 똑같은 물량을 수출하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1은 한 국가가 전체 물량을 수출하는 경우를 뜻함). 이는 국가 간 수출의 배분이 매우 불평등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30년 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품 수출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하위 78%의 수출 국가들이 세계 수출량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위 22%의 수출 국가들은 세계 수출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1.2.2. 세계 무역 추세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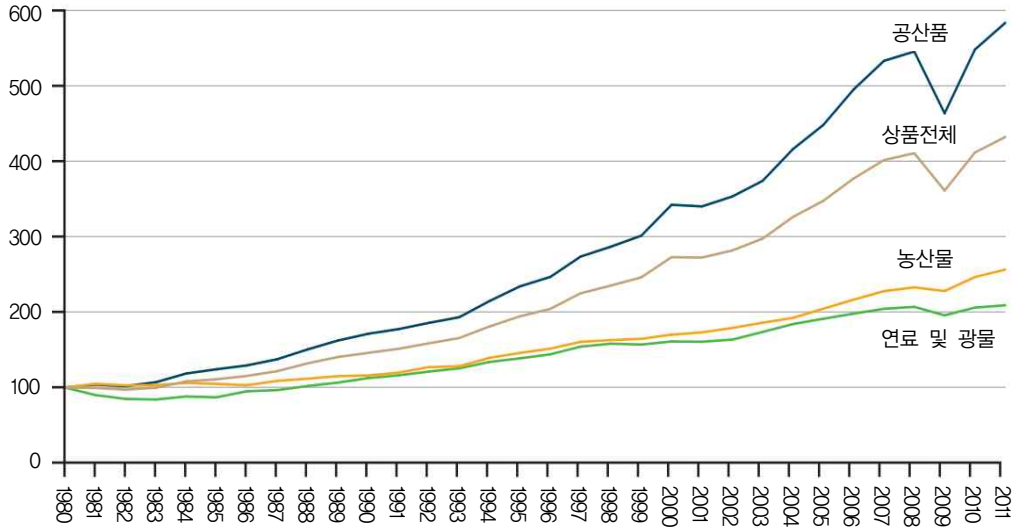
① 주요 교역 품목으로 보는 무역의 발전

오랫동안 공산품의 교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에 농산물 교역 비중은 계속적으로 감소했다. 1990년에 전체 상품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였으나 2011년엔 9%로 하락하였다.

가격효과를 제외한 실질 교역량을 살펴보면 1980-2011년에 전체 상품 무역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대부분의 성장은 이 기간에 교역량이 6배 증가한 공산품이 주도하였다. 농산물의 교역량은 2.6배 증가하였고 연료 및 광물 무역량은 2.1배의 증가에 그쳤다.



그림 4 부문별 세계 상품 교역량 추이(1980=100)



자료: WTO(2013).

## ② 산업 내 무역 (Intra-Industry Trade)

최근 세계 무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각 국가 간에 “산업 내 무역(IIT)”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유하고 상품의 다양성이 큰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와 견주어 더 많은 교역을 한다. 산업 내 무역을 계측하기 위해 그루벨(Grubel-Lloyd, GL) 지수를 사용한다. 상품  $i$ 에 대한  $GL$ 지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GL_i = 1 - \frac{(|수출_i - 수입_i|)}{(수출_i + 수입_i)}$$

$GL$ 지수가 0인 국가는 상품  $i$ 를 수입 또는 수출만 하는 경우이고,  $GL$ 지수 1은 같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일치함을 뜻한다. 2011년에  $GL$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홍콩으로 0.66을 기록하였고, 싱가포르 0.65, 미국 0.62, EU 0.60 순이다. 한국은 0.48로 중국의 0.40이나 일본의 0.39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sup>1)</sup> 이러한  $GL$ 지수는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의 경우 산업 내 무역에 참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반면에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LDC)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 내 무역 패턴을 지님을 시사한다.

1) 한국의  $GL$  지수 산출 및 적용 사례는 한국과 일본 간 비교(Yoshida 2009)와 한국과 EU 간 비교(최남석 2010) 참조.

## ③ 상업 서비스 무역

1980~1990년대에 서비스 무역은 상품 무역보다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성장세는 2000년대에 들어 둔화되면서 이내 상품 무역의 성장률보다 뒤처지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2008~2009년의 금융 위기 이후 서비스 무역은 상품 무역보다 훨씬 낮은 변동성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무역이 상품 무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가정이 종종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가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서비스 수출국은 미국으로 세계 전체 서비스 수출의 13.9% 가량(5,809억 달러)을 차지하고 영국 6.6%, 독일 6.1%, 중국 4.4%, 프랑스 4.0%, 일본 3.4% 순이다. 한국은 2.3%(938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1980년의 세계 18위 수준인 1.3%에서 개선된 결과이다.

2001년 기준 최대 서비스 수입국 또한 미국으로 3,953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10%를 차지하였고 독일 7.3%, 중국 6.0%, 영국 4.3% 순이다. 한국은 982억 달러로 13위를 기록하였는데, 1980년의 27위 수준인 0.9%보다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 1.2.3. 세계 무역의 전문화

세계 무역이 전문화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수출 집중도(Export concentration)와 현시 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허핀달-허쉬만(Herfindahl-Hirschmann,  $H$ ) 지수로 측정하는 수출 집중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H = \frac{\sqrt{\sum_k (x_k / \sum_k x_k)^2} - \sqrt{1/n}}{1 - \sqrt{1/n}}$$

위 공식에서  $\frac{x_k}{\sum_k x_k}$ 은 수출라인  $k$ 의 비중을 나타내고,  $n$ 은 전체 수출라인의 수를 나타낸다.  $H$ 지수는 0~1의 값을 지니며, 1이면 완전한 수출 집중을 의미한다.  $H$ 지수의 산출 값은 산출대상 국가의 80% 정도가 0.4 이하를 기록함으로써 수출 다각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유럽, 북미 및 아시아 국가의  $H$ 지수가 낮은 반면에 천연자원 부국인 개도국<sup>2)</sup>의 수출 집중도는 높게 나타났다.

2) 예: 콩고, 칠레, 모잠비크

한국의 수출 집중도는 1990년에 0.12와 2010년에 0.16을 기록하였는데, 이 기간에 수출이 오히려 집중되고 있는 추이를 보였다.<sup>3)</sup> 같은 기간에 미국은 0.11에서 0.07로, 일본은 0.14에서 0.13으로 다각화된 반면에 중국은 0.11에서 0.13을 기록해 한국처럼 수출 집중도가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이 기간에 주요 국가들의 수출 집중도는 감소했으며, 이것은 운송·통신 기술의 진보로 인해 국가별 수출의 특정 품목의 의존도가 완화되어 수출 품목의 구성이 유사해지는 변화가 초래된 것을 나타낸다.

둘째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RCA_{ij} = (X_{ij}/X_{Wj}) / (X_i/X_W)$$

여기서  $X_{ij}$ 은  $i$ 국가  $j$ 산업부문에 의한 수출,  $X_{Wj}$ 는 세계 전체의  $j$ 산업부문에 의한 수출,  $X_i$ 는  $i$ 국가의 전체 수출,  $X_W$ 는 세계 전체의 수출을 나타낸다.

1990-2010년에 주요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RCA 지수를 살펴보면, 공산품의 경우 선진국들은 대체로 비교우위가 떨어지는 추이를 나타냈다. 반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출 구조가 점차 숙련 기술 및 자본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산물의 경우 RCA 지수가 개선된 국가는 브라질,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인 반면에 호주, 중국, 체코, 멕시코 등의 지수는 악화되었다.<sup>4)</sup> 같은 기간에 한국은 화학과 자동차부품, 기타 기계류에서 비교우위가 상승한 반면에 섬유와 의류 부문에선 경쟁력 하락을 기록하였다.

#### 1.2.4. 세계화와 지역화

국가 간의 무역특혜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은 지난 20년 간 빠르게 증가해왔다.<sup>5)</sup> WTO(2011)에 따르면 1990-2010년에 PTA가 70개에서 300개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PTA의 확산이 국제 사회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다.

3) 한국의 H 지수 산출 및 적용 사례는 김민정(200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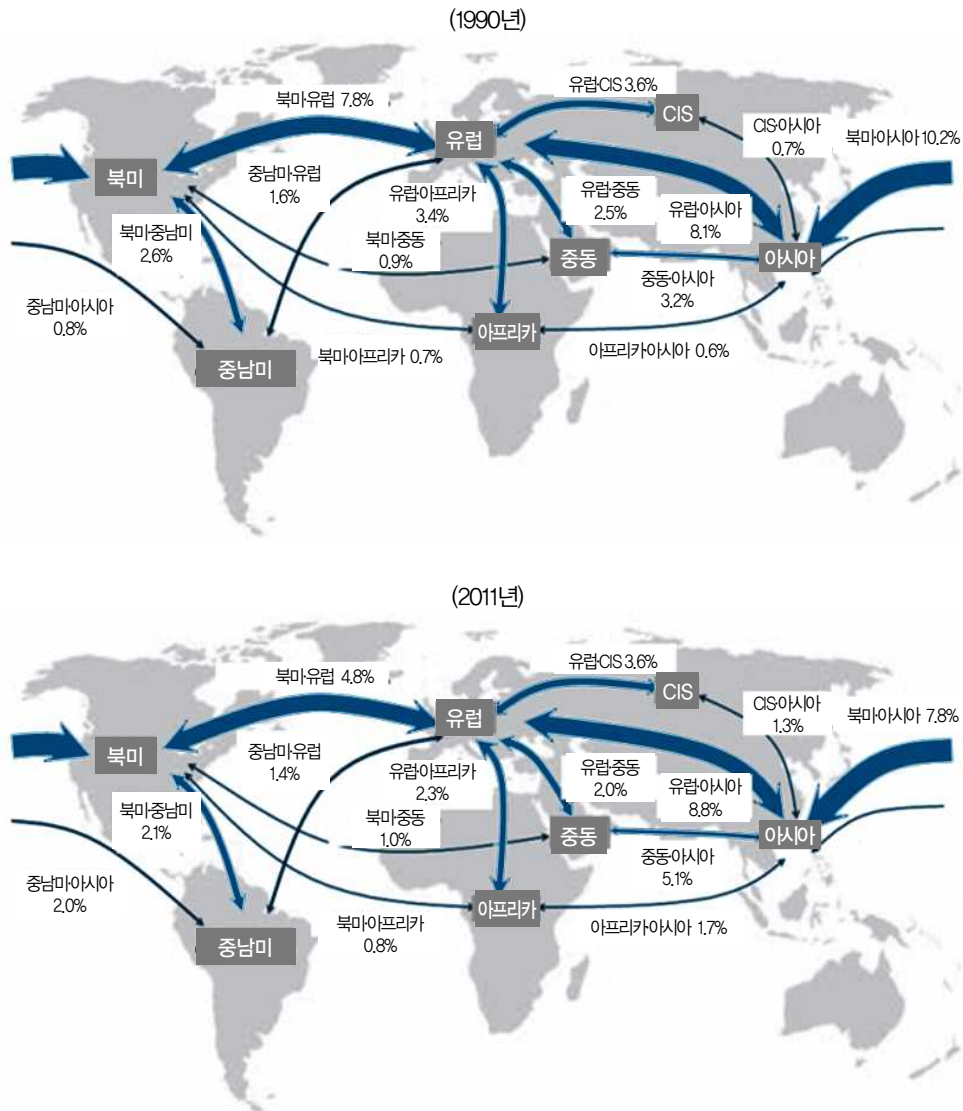
4) WTO(2013) 보고서가 한국 농업부문의 RCA 산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그 변화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만 한국 농업부문의 RCA 지수 산출 및 적용 사례는 어명근 등(2004)과 다른 경쟁력 지표 산출의 경우 최세균 등(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5) "특혜무역협정(PTA)" 과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는 같은 의미로 혼용된다. 전통적으로 PTA는 지역에 있는 국가 간에 맺어졌기 때문이다.

① 지역 내 무역 (Intra-Regional Trade)

아시아에서의 지역 내 무역은 총 교역량에서 점점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0~2011년에 아시아의 지역 내 무역은 42%에서 52%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유럽 내 무역 수준인 72%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유럽을 제외한다면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 내 무역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 세계 무역에서 지역 간 무역의 비중



자료: WTO(2013).

---

빠른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지역 내 무역은 2011년에 12%에 불과하다. 북미의 양자 간 무역은 2000년에 56%의 비중에서 2011년에 48%로 오히려 둔화되었다.

## ② 지역 간 무역의 흐름

<그림 5>는 전체 무역에서 두 지역 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화살표의 굵기로 표기한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양자 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아시아-유럽”으로 세계 전체 무역의 8.8%를 기록하였고, “아시아-북미” 7.8%, “아시아-중동” 5.1%가 그 뒤를 따랐다.

1990-2011년에 아시아와 연계된 교역량 비중은 계속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간의 교역량은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세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현재 1.7%에 불과하다.

## ③ 무역의 공급망(Supply Chains)과 중간재

공산품의 중간재 무역은 아시아와 다른 지역 사이보다는 아시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내 무역 역시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세계 무역의 공급망이 더욱 아시아 중심으로 발달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 1.2.5. 공급망이 초래한 세계 무역패턴의 변화

최근에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무역의 특징 중 하나는 생산과정이 많은 국가들에 걸쳐서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공급망(Global Supply Chain), 국제생산네트워크(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아웃소싱(outsourcing)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생산과정의 연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역 단계별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변화되고 있는 세계 무역패턴을 가늠하는 방편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측정 방법을 소개한다.

#### ① 무역의 부가가치 측정 방법

국제산업연관표(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를 통해 무역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이것은 여러 나라의 생산 및 배분뿐만 아니라 수출입을 통해 발생하는 국가 간의 거래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본다면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22.1%에서 2010년에 26.2%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입 중간재의 효과적인 활용이 수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② 부가가치 측면에서 무역의 흐름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 교역량을 측정할 경우 중간재의 재수출이 전체 교역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서비스 교역의 기여도가 2배가량 증가하였다. 이것은 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통합에 있어서 서비스 시장 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1.2.6. 소수 글로벌 기업의 세계 무역 주도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기업 수준의 연구에 따르면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수이며, 전체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은 소수의 수출기업에 집중된 모습을 나타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상위 1%의 기업이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EU의 경우에도 상위 1%와 10%의 기업이 전체 수출의 50%와 85%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상위 5개 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출 집중도가 높은 것은 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높아 자기 선발 과정(self-selection)을 거치면서 결국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기업만이 수출에 성공한다는 설명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이 수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더 그러한 경쟁력을 지닌 것이지, 수출을 통해 배운 결과(learning by exporting)가 아니란 점도 지적된다.

2. 세계은행(World Bank)의 농업분야 사업계획: 2013-2015

2013년 3월에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은 이전보다 확충된 2013-2015년도 농업 및 관련 분야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World Bank 2013). 이번 WBG의 사업계획은 빈곤과 굶주림에 처한 인구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진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4>는 사업계획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세계은행 그룹(WBG)의 중점 사업계획: 2013-2015년

(1) 회원국에 대한 지원				
분야	주요 조치	지표	현 수준	책임기관
농업 생산성 증가(탄력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대응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li> <li>토지와 물 관리 관행을 향상</li> <li>투자 사업에 민연한 성 불평등감소</li> <li>가뭄과 홍수에 내성이 있는 개량종의 채택 및 개발의 투자</li> </ul>	[중대] IDA/IBRD의 기후 변화 적응지원을 위한 농업 용자의 비율  고효율 관개장비의 사용을 위한 IFC 금융 증가	31% [2011-12년]  \$7,500만	AFR, EAP, ECA, LCR, MNA, SAR  AES와 DEC에서 기술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식물 관리 시스템과 같은 투자</li> </ul>	[중대] IDA/IBRD 기후 변화 경감 지원을 위한 농업 용자의 비율	21% [2011-12년]	OPCS 보고 IFC
농업인과 시장간 연계와 가치 사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부문의 대응 가치 사슬을 강화</li> <li>여성을 포함한 소규모 자작농의 영농 처리, 거래자, 농산품 공급사슬 통합자, 식품 소매의 네트워크 증대</li> </ul>	[중대] 농업을 위한 총 WBG 자원에서 IFC의 영농 투자 비율 (2010-2012년의 \$2,700만에서 2013-15년에는 \$4,000-5,000만으로 약 68% 만큼 증가시키기 위해 계획되어, 1,500만 농민에 영향을 미치는 IFC 영농 투자의 크기)	39% [2011-12년]	
농촌의 비농가 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부문의 대응</li> <li>특정 주제에 대하여 여러 국가의 분석에 더 중점을 둔 설문(Doing Business Surveys)을 개발하여 실행</li> </ul>	설문(Doing Agribusiness Surveys)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 [목표: 80개국]	0	AES FPD/IFC
공통주제: 위험과 취약성 및 성 불평등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 불평등의 감소에 중점</li> <li>농업 프로그램에서 전반적인 세계은행 수준을 뛰어 넘는 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규범의 향상</li> </ul>	[중대] 설계 단계에서 성 평등성 분석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비중 [목표: 100%]  [중대] 설계에서 모든 3개 성 차원(분석, 행동, M&E)을 다루는 계획의 비중 [목표: 75%]	68% [2011-12년]  46% [2011-12년]	AES 지역 (Reg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 관리에 중점</li> <li>국가수준 농업부문위험 평가 제고</li> </ul>	[중대] 이미 수행된 국가 수준 농업 부문 위험 평가의 수	2 [2012년]	AES 지역
	작물연계보험의 제공 확충	IBRD-IFC 작물연계보험 프로젝트의 수	10	IBRD/IFC
	농산물 가격 위험 관리와 무역 촉진을 위한 금융 수단을 확충	IFC의 농산물 가격 위험 매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국의 수 IFC의 중요 상품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국의 수	2013년에 결정	IFC
세계 식량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에 설립된 농업시장정보시스템을 재정·기술적으로 지원	매월 혹은 반년마다 세계 식량 전망 보고서의 이용 가능성	0 매월 보고  0 반년마다 보고	AES, DEC, FAO, OECD, WTO, IFAD, WFP, UNCTAD G20과 기타 8 개국	

표 4 세계은행 그룹(WBG)의 중점 사업계획: 2013-2015년 (계속)

(1) 회원국에 대한 지원				
분야	주요 조치	지표	현 수준	책임기관
	• 영양에 중점 생물학적으로 강화된 품종을 개발 및 채택,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품종 개량 하여 다양성을 확보, 농업 확대와 생계계획을 통해 영양교육 확대	[중대] 영양에 대하여 뚜렷한 초점을 갖는 프로젝트의 비율	12% [2012]	AES, HD, PREM 지역
	• 거버넌스에 초점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과 회복력 향상과 관련한 정치, 제도적 제약들의 특성과 국가 차원의 토지관리 평가체계의 폭넓은 이해를 위한 분석 작업 수행	[중대] 정치 경제적 사안들을 다루는 AAA의 수	2013년에 결정	AES, PREM 지역
	남남 협력을 포괄하는 기술 협력과 재정 지원, 제도의 수행능력 개발, 지식 공유 등을 전파하며, 국가 정책을 비롯한 VG에 따른 기술 이전의 발전 지원	VGs를 실행하는 회원국 정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토지, 어장, 삼림 소유권 관리에 관한 프로젝트의 수행 [목표: 100%]	100	AFR, EAP, ECA, LCR, MNA, SAR, AES, DEC, 기타 선진국
	대규모 주요 농업에 대한 새로운 IFC 투자는 식량 상황이 불안정한 국가들의 식량안보기준영향평가와 정부의 토지 사적 이전에 대한 주요 계약조건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 포함	식량 안보 기준을 평가하는 대규모 주요 농업에서 IFC 투자의 수	0	IFC
		정부의 토지 사적 이전에 대한 주요 계약조건이 밝혀진 대규모 주요 농업의 IFC 투자 수	0	
공동주제 환경 서비스와 지속가능성 강화	• 경관 강조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에 경관 접근방식 사용의 촉진 (예 농업 물 숲 생물다양성 등의 조합)	[중대] 경관 사용 프로젝트의 비율	2013년에 결정	AES 지역
(2) 실행방안				
실행 방안	주요 조치	진도 지표	현 수준	책임기관
최빈개도국에 우선인 투자와 계획의 강화	아프리카 주도의 CAADP를 통하여 투자의 우선순위, 계획, 정책 등을 위한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다자원조신용자 금 추구	[추가] CAADP를 통한 다자원조신뢰 기금 자원의 크기	\$1,250만	AFR
	농업의 공공 지출 검토를 통하여 계획의 과정과 투자우선 순위 지원	완료된 농업의 공공 지출 검토 건수	7 [2009-10년]	ASE에서 PER 수단을 사용하는 지역(주로 AFR)
	아프리카 지역에서 IFC 영농 영향의 규모를 확대하는 새로운 계획 실행	[중대] 아프리카 지역에서 IFC 영농 투자의 크기 [2015년까지 \$12억으로 확대]	\$6억 [2012년]	IFC
아프리카 지역 에서 관개시설 의 추가적 규모 확대와 토지 소유권 프로젝트 촉진	필요하지만 준비하는데 비용이 수반되는 프로젝트 준비 시설을 설립하기 위하여 상대국과 작업 (예: PPP를 포함한 관개, 토지 소유권 계획) [USAID 주도]	프로젝트 준비 시설의 운영	-	USAID, AfDB, WB AFR, IFC, 및 선진국



표 4 세계은행 그룹(WBG)의 중점 사업계획: 2013-2015년 (계속)

(2) 실행방안				
실행 방안	주요 조치	진도 지표	현 수준	책임기관
국가수준에서 IDA/IBRD/IFC/MIGA 지원 간 더 나은 연계	IFC, WB 지역의 민간부문 개발과 농업을 담당하는 GARAP (Global and Africa Region Agribusiness Platform)과 같은 내부 창구의 사용을 포함하면서 IFC와 세계은행의 외교업무 자원팀 간 조화 강화	세계은행과 IFC의 농업과 개발부문 직원 간 서로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 수	4개 프로젝트	IFC, AES 지역
	GAFSP(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를 통해 공공과 민간투자의 연계 강화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의 투자 창구를 갖춘 GAFSP 국가의 수	1	GAFSP, WB, IFC, ADB, AfDB, IDB, IFAD, FAO, WFP
부문 간 대화와 프로젝트 발굴에 지침이 되는 영향 분석 등 분석적 작업의 강화	SecureNutrition Knowledge Platform on Food Security and Nutrition과 AFR을 위한 CAADP 진전이라 추진되고 있는 작업을 통해 파트너십 강화	[중대] 농업과 농촌 개발에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분석 수행	54% [2009-11년]	SDN
		분석적인 결과물과 만족하는 직원의 비중(전문/관심 분야 대비)	-	
		분석 결과에 만족하는 외부 회원의 비중(전문/관심 분야 대비)	-	
	개별 프로젝트의 영향을 증대시키기 위해 영향 평가의 전략적 사용과 장기 방향에 대한 지원 추구	수행된 영향 평가의 수	20 진행 중	지역, DIME
프로젝트의 질 향상	[설계와 지속가능성에 초점] 농업 생산성, 가축, 산림, 토지 소유권, 생물 다양성 및 기후대응 농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경관조성방식의 설정	만족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된 프로젝트 [목표: 80%]	71% [2009-11년]	SDN
	[위험에 초점] 부문별 이슈가 다뤄지도록 진행 중인 World Bank Safeguards 개정에 참여	이행 관련 진행 중인 프로젝트 또는 그 개발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수정계획이 완료된 프로젝트의 비중 [목표: 80%]	66% [2012년 종료]	AES, 지역들, SDN
	[직원채용에 초점] 직원을 지원의 크기와 구성에 맞추어 조정(예: 보조인 고용, 현 수준을 넘는 여러 지역에 걸친 추가 채용)			ARD 부문 이사회, 지역들

주: VG=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ASE=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Services AFR=Africa Region  
 ARD=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DIME=Development Impact Evaluation Initiative  
 EAP=East Asia and the Pacific ECA=Europe and Central Asia  
 FPD=Finance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LCR=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M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AR=South Asia  
 SDN=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FP=World Food Program

자료: World Bank(2013).

## 참고문헌

- 김민정. 2009.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과 극복과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09-42.
- 어명근, 권오복, 이현주. 2004. 한-EFTA FTA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탁연구.
- 최남석. 2010. 한국의 대외무역 지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0-14.
- 최세균, 이대섭, 주현정. 2007.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 부문 연구(1/2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553.
- World Bank. 2013. World Bank Group Agriculture Action Plan. #76304, World Bank. <[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13/01/17747135/implementing-agriculture-development-world-bank-group-agriculture-action-plan-2013-2015](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13/01/17747135/implementing-agriculture-development-world-bank-group-agriculture-action-plan-2013-2015)>
- WTO. 2013. World Trade Report 2013: Factors Shaping the Future of World Trade. Geneva, WTO. <[www.wto.org/english/res\\_e/publications\\_e/wtr13\\_e.htm](http://www.wto.org/english/res_e/publications_e/wtr13_e.htm)>
- \_\_\_\_\_. 2011. World Trade Report 2011: The WTO and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Geneva, WTO. <[http://www.wto.org/english/res\\_e/publications\\_e/wtr11\\_e.htm](http://www.wto.org/english/res_e/publications_e/wtr11_e.htm)>
- Yoshida, Yushi. 2009. "Intra-Industry Trade Between Japan and Korea: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Fragmentation and Export Margin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NAEC Research Series 09-03.